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대학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 교육목적 기독교적 인성과 세계시민 의식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NO.396 2023. 6. 1.(목)

발행인 김상식 주간 김희선 간사 방미향 편집장 박미경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243 https://www.sungkyul.ac.kr



4 대학
POOL : US



7 사회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대란'의
현실화



9 교양
이국땅에서 이름을
알린 독립운동가,
조명하



10 문화
우리의 여름을
꺼내 보며

2023 성결 FAIR: JUMP UP 개최



5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3일간 본교 학술정보관 1층 로비와 야외 분수대 앞에서 <2023 성결 FAIR: JUMP UP>이 개최됐다. 해당 행사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토끼가 경충 뛰어오르듯 본교의 교과·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성공으로 도약하자는 의

미를 가지고 진행됐다. 교육혁신지원센터가 주관해 진행된 이 행사는 통합역량개발시스템(SUCCESS)을 통해 신청한 뒤 FAIR 기간 내에 1번 총괄본부에 방문해 서명한 후 입장해 부스를 체험하면 된다. 부스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혁신지원센터 ▲국제교류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다수의 부서가 참여했고, 학과는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체육교육과가 참여했다. 하나의 부스에 방문할 때마다 스탬프를 하나씩 적립할 수 있는데 최대 12개까지 적립 가능하며 6개 이상 적립한 재학생에게는 일 200명에 한해 푸드트럭 이용 쿠폰을 지급했다. 스탬프를 12개 적립한

재학생들은 1번 총괄본부에 재방문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FAIR가 끝난 후 추첨을 통해 ▲외장하드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크림을 받았다.

5월 23일(화) 13시에는 학술정보관 야외에서 개회식이 진행됐으며 본교 김상식 총장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비교과 운영 성과 공유 전시 및 공연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진행했는데 온라인으로는 교내 비교과 우수작을 사이니지 영상 송출을 통해 많은 학우들에게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상시로 볼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23일(화) 13시 30분부터 14시 10분까지 학술정보관 1층 로비에서 문화공감 연주 및 공연이 진행됐고 인증 서평 전시회도 관람할 수 있었다.

<2023 성결 FAIR: JUMP UP>에 참여한 양서륜 학우(동아 20)는 "성결페어를 통해서 다양한 부서들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됐다. 특히 창업에 관심이 많아 창업교육센터의 창업 동아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년에 창업 동아리를 가입할 예정이다. 성결대 모든 학생들이 성결페어에 참여하여 저처럼 유익한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참여 후기를 밝혔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교육혁신지원센터

본교, 어린이날 맞이 봉사활동 실시



본교 ▲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는 5월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안양시에서 주최한 어린이 대상 어린이날 큰잔치 ‘애들이 놀자~’에서 연합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본 행사를 통해 ▲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교수와 학생이 함께 성결대학교 사회봉사센터와 연계,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상호간 신뢰와 소통을 증진하고, 세 학과가 연합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우천으로 인해 안양시청 본관과 나비만들기와 부모-자녀 인바디 측정 등을 운영하고 책임있게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이날 성결대

학교 유아교육과 조유진 학과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성장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체육교육과 안완식 학과장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박미라 학과장은 “세 학과가 연합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융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봉사를 실천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l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유아교육과, 서울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5월 15일 본교 총장실에서 서울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본교 김상식 총장, 조유진 유아교육과 학과장과 유아교육과 임은미, 배지현, 이경진, 김수희, 강성리 교수 및 김계동 지역사회협력단장이 참석했고, 서울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윤영선 센터장과 팀장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실습 ▲교육봉사 지원 ▲경영컨설팅 및 재직자 교육 ▲학술정보의 교류 및 협동 연구 등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협력할 계획이다. 김상식 총장은 “유보통합을 앞두

고 영유아 이음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본 협약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사회발전과 영·유아 이음교육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윤영선 센터장은 “교수 재교육과 가정지원 사업 등 성결대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l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유아교육과, EK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본교는 5월 15일 본교 총장실에서 교육전문 기업 EK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본교 김상식 총장, 조유진 유아교육과 학과장과 유아교육과 임은미, 배지현, 이경진, 김수희, 강성리 교수 및 김계동 지역사회협력단장이 참석했고, EK그룹 이희주 회장, 임민채 총괄전무를 비롯한 EK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산학협력 ▲현장실습 ▲공동연구 ▲정책자문 등 기관과 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협력할 계획이다. 김상식 총장은 “EK그룹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며 EK그룹이 에듀테크에 기반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앞으로 산학 협력을 통해 유아교육과뿐만 아니라 IT공과대학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희주 회장은 “양 기관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조유진 유아교육과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아교육과 및 성결대학 여러 학과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의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EK그룹은 5월 24일 본교 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되는 성결 FAIR 진로상담캠프에 참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 멘토링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l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2023년 KT위즈파크 전광판 홍보 진행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관객의 연령대가 잠재적 입시준비생인 청소년부터 2~30대 및 가족 단위 관객까지 광범위해졌다. TV를 비롯한 언론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높은 광고 효과를 보이며 전광판 광고는 최고의 스포츠 마케팅으로 손꼽힌다. 이에 본교는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입시 홍보를 위해 프로야구 정규시즌인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KT 위즈파크 전광판 하단 LED 광고를 진행한다. ▲지상파 ▲스포츠 TV ▲DMB ▲포탈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간 70~80회의 TV 생

중계와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직·간접적인 반복 노출을 통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본교에서 반경 약 12Km 거리에 위치해 근접한 입학 자원에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홍보비 대비 광고 노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해당 홍보를 통해 본교의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돼 많은 학생들에게 본교가 알려지고 재학생들은 자부심을 함양하길 바란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ld0827@sungkyul.ac.kr
사진 - TV 중계 노출 캡처

WBS CUP 글공사리그 진행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WBS CUP이 진행됐다. WBS는 본교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토너먼트 형식의 축구 학과 대항전으로 ▲글로벌경영기술대학 ▲IT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의 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해당 리그는 단과대학 대항전과 학과 대항전 두 개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단과대학 대항전에서는 사회과학대학이, 학과 대항전에서는 경영학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중생관 앞에서는 풍선다트, 축구공으로 고깔 맞추기, 결승 승부 예측과 같은 이벤트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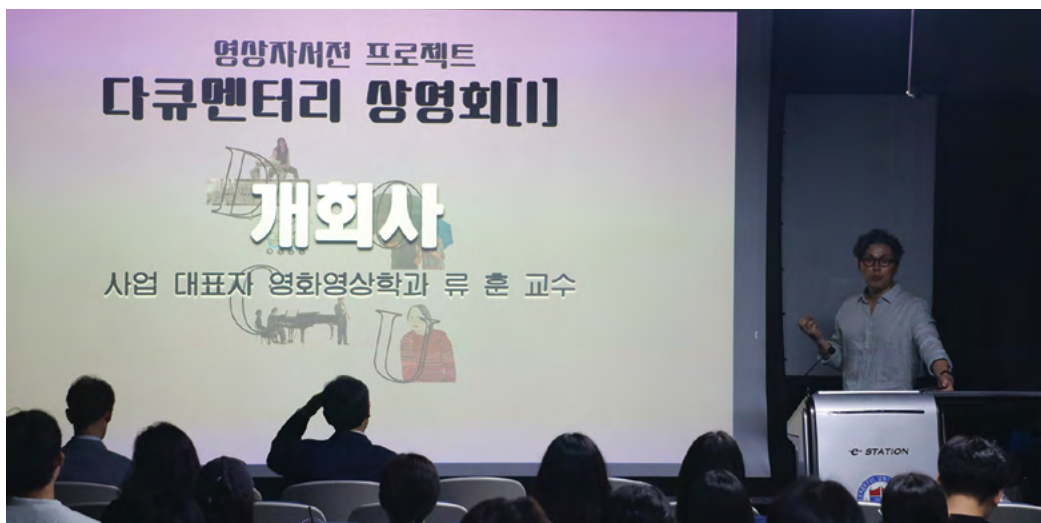
또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뒤 제25대 '소중한 기억으로 하나 되는 우리, 소원[所:one] 사회과학대학' 학

생회장 유환빈 학우(국개협 20)는 “학과와 단과대 대항전을 진행하면서 많은 학우들이 경기에 참여해 주셔서 학과와 단과대에 대한 소속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뿌듯함을 받았다. 자신의 학과를 응원하러 오고 이벤트를 참여해 주신 학우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행사를 기획한 입장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서 사회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ud0827@sungkyul.ac.kr

사진 - 이서연 기자 tjds1596@sungkyul.ac.kr

TEC 사업 ‘영상자서전 프로젝트 - 다큐멘터리 상영회(1)’ 개최



본교 인문영상매체활용실(영암관 201호)에서 5월 30일(화)부터 6월 2일(금)까지 4일간 TEC 사업의 ‘영상자서전 프로젝트 - 다큐멘터리 상영회(1)’가 개최됐다. ‘다큐멘터리 상영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교 ▲영화영상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가 함께하는 융합사업(TEC)인 ‘영상자서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영상자서전 프로젝트’는 “모든 인생은 기록할 가치가 있고, 영화적 서사는 개인의 서사에서 출발한다.”라는 신념으로 안양시민들이 가진 개인의 역사를 영상자서전으로 제작하여 많은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는 지역민 협력 프로젝트이다. 이번 다큐멘터리 상영회는 영상자서전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영상자서전 제작에 앞서 본교 학생들이 인물 다큐멘터리 서사 구성 방식과 다큐멘터리의 미학, 대중의 선호를 이끄는 콘텐츠 기획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국내외 영화제에서 많은 수상을 거둔 다큐멘터리 작품들로 구성됐다. 배우이자 캐리커처 작가인 정은혜의 이야기를 담은 <니 얼굴>, 제42회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녹턴> 등 6편의 장·단편 우수 작품들이 포함됐다.

5월 30일(화) 오픈 행사에는 본교 김상식 총장이 참석해 “‘OTT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문·영상 융합사업’의 일환으로 본교 영화영상학과와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세 개의 과가 융합해 영상자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문과 예술이 만난 아름다운 융합의 산물을 목격하게 됐다.”라고 축사를 전하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학혁신실장 및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인문영상매체활용실(영암관 201호)은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화영상학과가 진행 중인 ‘OTT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문·영상 융합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특수목적강의실로서 일반수업과 고화질, 고음향의 영화상영이 가능하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ud0827@sungkyul.ac.kr

사진 - 박제현 부편집장 zzcjftjdz@sungkyul.ac.kr

동아리의 밤 : 동아리의 별빛 라디오 진행



5월 24일 본교 기념관 5층 대강당에서 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한 동아리의 밤이 진행됐다. 동아리의 밤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본교 동아리들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동아리 활동 전시 및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해당 행사는 사전에 예매를 한 뒤 공연 당일 대강당 앞 로비에서 티켓을 교환해 동아리의 밤:동아리의 별빛 라디오를 즐기면 된다. ▲페가수스 ▲세인트 ▲소리하나 ▲소녀리스 ▲뮤직에 5개의 동아리가 공연을 하며 동아리의 밤을 더욱 빛냈다. 해당 공연이 끝난 후에는 경품 추첨을 진행해 학우들의 흥미를 유도했다.

제39대 ‘너와 함께 그려낼 순간 Sketch 동아리연합회’ 회장 서형원 학우(산업경영공학과 18)는 “원래 각 단과대학에만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39대 동아리연합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동아리 부원들도 ‘밤’행사를 같이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고 실제로 예능 분과의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회도 열면서 다른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어우러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개최하게 됐다. 처음 선보이는 행사인 만큼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다.”며 행사 후기를 전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ud0827@sungkyul.ac.kr

사진 - 박제현 부편집장 zzcjftjdz@sungkyul.ac.kr

제21회 글로벌물류학부 물류인재상 수여식 진행



지난 5월 18일(목) 본교 아립국제회의실에서 제21회 글로벌물류학부 물류인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물류인재상은 ▲물류 관련 자격증 ▲학점 ▲어학성적 등을 고려해 물류인재 자격을 갖춘 재학생에게 인재상장과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수상자는 박성빈(동아 18) 학우 외 21명이 수상했다. 물류기업의 후원을 통해 진행된 물류인재상 수여식은 글로벌물류학부 학생들의 미래 비전을 독려하는 계기가 됐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lud0827@sungkyul.ac.kr

사진 - 글로벌물류학부



POOL:US

지난 5월 30일(화)부터 5월 31일(수)까지 본교 축제인 제60회 영암축전이 개최됐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POOL:US'로 수영장(Pool)과 우리(Us)가 하나(+) 되는 여름날의 축제를 뜻하며 본교 '우리' 모두가 하나로 '+' 되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RE:NEW 총학생회의 다짐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운동장에서만 진행됐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3곳의 구역을 나눠 구역별 ISLAND라는 컨셉을 구성해 교내의 다양한 위치에서 진행돼 학우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떠나보자!

#축사 및 환영사



성결대학교 총장 김상식

여러분 코로나는 종식됐습니다.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학생들 서로 간에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하고,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으며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또 5월의 푸르름이 질어만 가는 이 시간에, 상큼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이번 영암축전을 개최하는 것에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총학생회에서 주제를 Pool-Us라 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총학생회에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주제로 정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 개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정서, 다양한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Pool에서 우리 모두가 당겨져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속의 다양성을 발견해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Pool에서 당겨져서 더 큰 우리 속에서 각자의 자신을, 학우를 새로 발견하면서 하나가 되는 시간을, 선배와 후배가 그리고 다른 전공생들끼리 하나가 돼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39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임원들이 이렇게 알차고 즐거운 축제를 준비해 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계의 여러 임원들, 대의원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 부서인 학생지원처 교직원, 또 관계부서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드리고 오늘과 내일 계속 펼쳐지는 영암축전이 정말 여러분의 젊음의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대학교 슬로건의 모토를 외칠 때 여러분의 함성을 들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상과 같이하는 가치로운 성결대학교 화이팅!

#숲속의 작은 쉼터, Garden Island

2023 영암축전 POOL:US의 첫 번째 ISLAND는 숲속의 작은 쉼터, Garden Island다. 이곳에는 각 학생자치기구에서 운영하는 부스들과 부스 음식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푸드존과 피크닉존이 마련됐으며 축제의 즐거움을 사진에 담은 인생네컷을 찍을 수 있었다. 한편 이날 부스꾸미기 1등의 주인공 기독교교육상담학과와 학생회장 박종명(기교 19) 학우는 “학과에 애정을 쏟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박미라 학과장님께 감사하며 함께 준비한 학생회와 더불어 이쁘게 봐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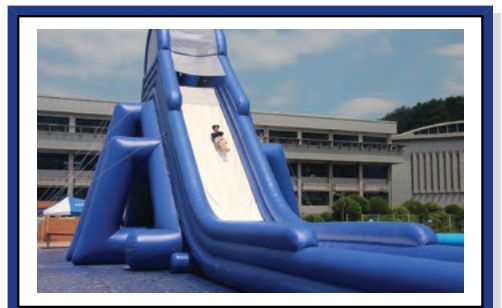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서, Romantic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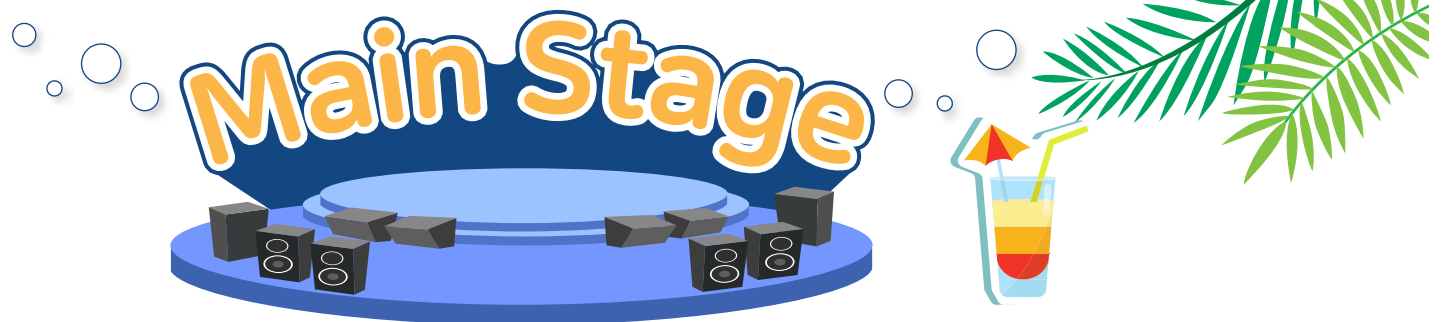
2023 영암축전 POOL:US의 두 번째 ISLAND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서, Romantic Island다. 그에 걸맞게 총학생회는 1:1 블라인드 소개팅 'Who Are You?'와 랜덤 소개팅 '사탕팅'을 주관해 로맨틱 캠퍼스를 만들었으며 이외에 ▲마켓 ▲플리마켓 ▲타임레터 ▲포토존 ▲퍼스널컬러 ▲심리상담센터 등을 통해 다채로운 축제를 만들었다. 이날 사탕팅에 참가한 익명의 학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대학 캠퍼스 생활에 설렘이 가득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름날의 청량한 쉼터, Water Island

2023 영암축전 POOL:US의 마지막 ISLAND는 여름날의 청량한 쉼터, Water Island다. 이곳은 축제의 메인 Island로 풀장과 워터 슬라이드, 물총 서바이벌 'Water Ground'를 통해 여름 축제의 묘미를 즐길 수 있었다. 이외에도 ▲총학생회가 준비한 다양한 굿즈 ▲사위장 ▲그래피티 아트가 준비돼 모두가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진행돼 학우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했다. 축제를 즐긴 한혜원(국개협 22) 학우는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선택지가 많았고 포토존이나 아트랙션 등 즐길 거리도 많아서 좋았다. 그리고 학우들의 공연과 아티스트의 무대도 즐거워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됐다.”고 말했다.





#P:F TIME

랩, 댄스, 노래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통해 성결인의 끼와 재능으로 채워진 P:F TIME 이 진행됐다. 총 7팀이 참가해 학우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우승을 차지한 어쩔 핑크팀의 리더 김승종(뷰티 20) 학우는 “같은 과 4학년 친구들끼리 졸업 전 마지막 축제에서 직접 만든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좋은 추억을 남겨 행복했고,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다.”며 소감을 남겼다.



#최강학부[最強學部]

총 15팀의 학부(과)별 대표들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최강학부[最強學部] 무대를 빛내줬으며 영예의 1등은 연기예술학부가 차지했다. 연기예술학과의 대표 권은경(연영 22) 학우는 “교내 정기 연극공연을 준비하면서 최강학부 공연 준비까지 동시에 준비해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작년에 이어 1등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감사할 따름이다. 공연을 준비한 연극영화학부와 다른 모든 학부(과)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동아리 공연

동아리원들이 땀과 열정을 쏟아 열심히 준비한 동아리 공연과 타 대학의 찬조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학우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날 합동 공연을 펼친 폐가수스 단장 김가영(관광 21) 학우는 “학교에서 제일 규모가 큰 축제이다 보니, 더 완벽하고 맛있는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다. 학우분들께서 공연도 많이 봐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더 활기찬 축제가 될 수 있었다. 공연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모든 동아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본교를 더 빛내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폐가수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아티스트 공연

축제의 하이라이트, 아티스트 공연! 다양한 연예인들의 공연은 여름날의 축제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축제의 첫날인 5월 30일(화)에는 학과 점퍼를 입고 공연한 가수 소수빈을 시작으로 감미로운 목소리의 권진아, 강력한 밴드 사운드의 루시, 그리고 2018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찾은 불빨간사춘기를 마지막으로 공연은 마무리됐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수)에는 SNS상에서 핫한 그룹 이짜나언짜나의 불타는 공연을 시작으로 열기를 더욱 끌어올린 비와이의 무대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찾은 10CM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축제의 끝을 알렸다.



본교 총학생회장 박주혁 학우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캠퍼스를 어떻게 학우들에게 돌려줄지 고민하다 운동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축제를 펼쳐 축제 기간 캠퍼스는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준비기간에 현실적인 제약이 아쉬웠지만 제39대 총학생회가 학우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축제를 함께 빛내주셔서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글 - 박제현 부편집장 zzcjftjdz@sungkyul.ac.kr / 사진 - 학보사 일동

취업, 이젠 쉽고 편하게 하자!

청년 취업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턴십과 같은 직무 경험을 쌓기 힘들거나, 자신의 적성과 맞는 직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혼자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국가 지원 사업을 이용해 취업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이번 호에서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



서울시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구직자 역량분석, 1:1 전문 취업 컨설팅, 취업특강 진행,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참여대상 만 15세 ~ 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운영기간 2023. 03. 07. (화) ~ 상시운영

접수방법 홈페이지 신청 (<http://jobmatchseoul.or.kr/>)

문의 02-731-95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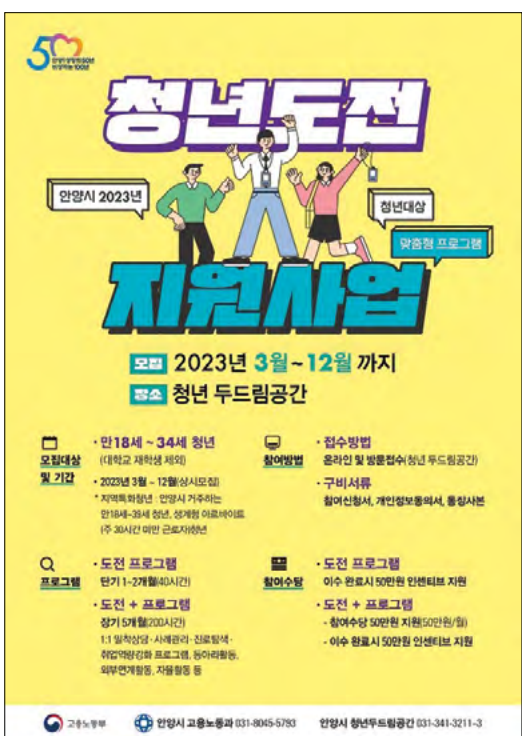
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전담창구에는 매칭 전문 컨설턴트, 구인수요 정보 발굴 전문가 등 8명이 상주한다. 이 8명의 전문 인력들은 취업에 대한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청년 구직자에게 ▲개인별 역량진단 ▲개인별 희망기업 선정 ▲직무 탐색·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등 집중 컨설팅 ▲직무 적합 기업 발굴 ▲집중 매칭 등으로 이어지는 수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 준비생이 직접 기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험형 기업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기업탐방 프로그램은 인사담당자를 통해 둘러보는 형식이 아니라, 실무자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청년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의 핵심 기능은 청년 구직자와 선호 기업을 직접 모집·발굴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대상은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신성장 4차 산업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은 어디든 가능하다.

가장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신청은 10분 안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외 문의사항은 '서울 청년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추가하면 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직접 현장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를 통해 현재 상황과 진로에 관한 고민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란다.

#안양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안양시 2023년 청년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모집대상 및 기간

- 만 18세 ~ 34세 청년 (대학교 재학생 제외)
- 2023년 3월 ~ 12월(상시모집)
- 지역특화청년: 안양시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 장애형 이주배치(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단기 1~2개월(4시간)
- 도전 + 프로그램: 장기 3개월(20시간)
- 1:1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영어리더링, 직무면접기술, 자립활동 등

접수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청년 두드림공간)
-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도전 프로그램

- 이수 완료시 50만원 인센티브 지원
- 도전 + 프로그램: 참여수당 50만원 지원(50만원/월)
- 이수 완료시 50만원 인센티브 지원

안양시 고용노동부 031-8045-5783 안양시 청년두드림공간 031-341-3211-3

과 청소년 쉼터 등의 입·퇴소 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이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39세의 구직단념 청년들을 또한 지역 특화 대상으로 참여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상시 모집이다. 신청 방법은 안양시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들이 다시 의욕을 갖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성남시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곤 한다.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각 직무 유형 별로 꼭 필요한 자격증들이 있기 마련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 준비 비용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겐 만만치 않다.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성남시 거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모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이 가능한 자격증 분야는 ▲토익·토플을 비롯한 11가지 어학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880종이다.

지원내용은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를 1인당 100만 원 이내 실비로 지원해 준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접수를 진행하며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생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자격증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횟수와 자격증 시험 횟수 제한은 없다. 단 저소득 청년, 자립준비 청년, 취업 애로 청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을 참여하기 위한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취업 All-Pass 사업 신청자 모집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수강료 1인당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3. 6. 1. (목) ~ 2023. 7. 31. (월)

신청대상 만 19~34세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

지원자격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수강료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응시횟수 & 수강횟수 제한없음) ※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

지원분야

- ①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기본·심화
- ② 어학시험 (11종):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토플, 토익, 아이엘츠, 지텔츠, JPT, JLPT, HSK, TSC
- ③ 국가공인자격증 (880종):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정보경영관리, 회계, 경제정보, 금융, 인문, 사립대학, 불특정 다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참여바 어플리케이션 > apply.jobcbs.net

문의처: 성남시 청년센터(01577-31001), 성남시 청년정책과(031-729-8503, 8504) ※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 경험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기회를 기회로!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기회를 잡아보자!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은 인턴과 같은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활동이 부족하다. 하물며 최근 취업시장은 업무 경험 없는 사회 초년생들에겐 가혹한 환경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에선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청년층의 일 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 구직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첫 번째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탐방이다. 기업탐방은 기업에 방문해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자의 멘토링, CEO

·인사 담당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진로를 설정하고 직무 탐색을 지원한다. 기간은 5일 이내로, 미취업 청년에 해당되며 최대 1만 명이 지원 가능하다.

두 번째 지원 프로그램은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는 직무 기반의 실험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이다. 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를 팀별 수행하며 기업·운영 기관에서 수행 과정을 코칭 한다. 기간은 1개월 내외로, 미취업 청년 2천 명을 지원한다.

세 번째 지원 프로그램은 인턴십이다. 인턴십은 국내의 우수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 수행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험형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기간은 1~3개월 내외이며 미취업 청년 7천7백 명을 지원한다.

청년 구직자의 일 경험을 늘릴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이번 396호에서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청년 취업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봤다. 자신의 적성과 맞는 일자리를 매칭 시켜주는 프로그램부터 청년 구직자의 일 경험을 늘려주는 프로그램, 구직단념 청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의욕을 갖고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글 - 김근형 수습기자 hanangun@sungkyul.ac.kr

사진 - 서울특별시, 성남시청, 안양시청, 고용노동부

[참조] 안양시청, 노동노동부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대란’의 현실화

1970년대를 시초로, 간호계는 몇십 년간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을 포함한 ‘간호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안은 항상 무산됐지만, 지난 4월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번 호에서는 의료계에 혼동을 가져온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 파업을 알아보고자 한다.

간호사의 처우와 업무를 보장하라!

‘간호법’이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 시키는 법안이다. 즉,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총 5대 의료인이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에 묶여있으며,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명시돼 있다.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낡은 의료법이 간호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숙원과제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간호사 수는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의 51.8% 정도로, 이들의 평균 근무 연수는 단 7년 5개월이다. 이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힘들게 면허를 취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전후로 그만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간호인력들이 과중한 업무량, 낮은 보수 수준 등을 직무 어려움의 이유로 뽑았다. 간호계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간호법을 둘러싼 분쟁의 시작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 및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정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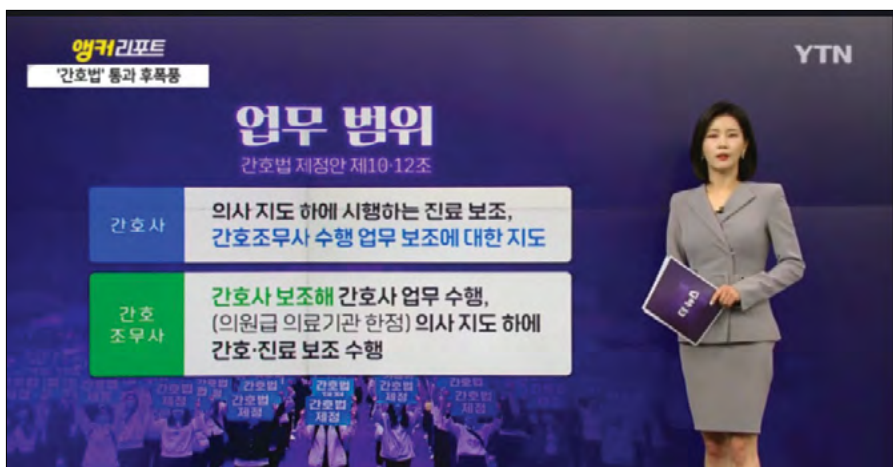
간호법 내용 논란의 쟁점은 지역사회와 업무범위로 알아볼 수 있다.

간호법 제1조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위와 같이 간호법 제1조항이 시행되면 간호사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로 넓어진다. 즉 병원을 벗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간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를 반대하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로, 대한의사협회의 가장 중심적인 주장은 “간호법을 제정하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 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 자체가 혼란이 오거나 붕괴하는 식으로 도미노 효과가 점차 나타날 수 있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간호법 제정안 제10조 및 12조에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간호사의 권력이 강해지면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설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할 것이라며 간호법을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이는 이권다툼이 개입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 측은 대한의사협회에 간호법이 시행된다고 간호사가 단독 개업 및 처방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침탈의 목적이 아닌 간호업무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법은 이미 전 세계 90여 개의 나라에서 제정돼 있지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미제정 돼 있다.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간호사들은 기본적으로 1~2시간 초과근무가 당연시됐고,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체형이나 엑스레이 촬영까지 모두 간호사들의 업무가 돼버렸다.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배치 기준만 있고 업무에 대한 범위가 없으며 간호법은 간호사가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며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의료대란! 의료파업!

간호법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지난 3일 부분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진행했으며,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다. 이어 11일에 2차 연가투쟁을 예고함과 동시에 1차 부분파업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 영양보조사들도 합류할 것을 밝혔다. 이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파업 참여를 강제할 수 없지만 참여율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80~90%인 2만여 곳이 휴진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간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17일 총파업 선언한 상태.”라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이 필요 하단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단체행동에 신중했던 간호사들은 파업 가능성을 주장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분들 힘내세요!”, “간호사 파업 찬성” 등 뉴스의 댓글 80% 이상이 간호협회를 응원하는 반응을 보이며 간호법 제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국민의힘이 간호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간호법 중재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50만 간호사의 눈물

결과적으로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계 오랜 숙원인 간호법이 정쟁에 밀려 폐지될 처지에 놓이자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 모인 간호사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분노와 배신감에 오열하다 실신한 간호사도 볼 수 있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협이 ‘정치적 침판’을 예고하면서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결국 간호법 제정은 불발됐지만 아직 포기는 이르다.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개혁은 시급한 사안이다. 간호법에 반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 마련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위로의 목소리를 전했다.

글 - 정예술 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이데일리, YTN, 포드뉴스

[참조] 이데일리, 연합뉴스, 뉴시스

‘스쿨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쿨존. 하지만 최근 여러 사고들을 바탕으로 더 이상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스쿨존에서 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할지 이번 호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스쿨존’ 정확하게 알아보자!

스쿨존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스쿨존에 뭐가 있으며,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스쿨존이란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단,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지정 가능)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 방지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

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는데,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허용된다.

#‘스쿨존’, 정말 안전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스쿨존 사건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8일 대전의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인도로 달려들어 어린이 4명을 덮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3명은 부상을 입고 1명은 사망하는 큰 피해가 생겼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적용되는 위험 운전치사상죄, 어린이 보호 구역 치사상죄, 일반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해자는 1996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몰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쿨존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12월 2일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방

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렇듯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스쿨존’에서 연이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 더 이상 스쿨존도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2023년 4월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5건에서 2022년도에는 35건까지 4년 만에 40%의 상승 추이를 보였다. 이는 대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인데, 대전도 마찬가지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 건수는 2018년 13건에서 2021년 22건으로 증가했다.



#그럼 스쿨존 사고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스쿨존과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법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지만, 차량을 몰수하는 처벌도 있다. 스쿨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인 가해자를 검찰이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당시 사고 차량을 몰수한 것이 그 사례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음주운전 예방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하고 있다.

#여전히 그대로... 스쿨존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스쿨존 사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사법부는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는 2023년 4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에 처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나고 여기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할 시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새 양형기준은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에 있던 법률을 강화해 스쿨존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또한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주·정차 금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사고위험이 증가합니다.

시속 30km이하로 감속!
30km/h로 감속하더라도 사고 시 어린이는 신체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스쿨존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무조건 감속!

전방, 후방 주시!
작은 신체구조로 운전자가 못 보기 쉬운 어린이! 전방, 후방을 더 유심히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앞 우선 멈춤!
전방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일시정지! 또한 아이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급정거, 급출발을 자제해 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을 보면 주정차는 금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감속해야 한다. 또 작은 신체 구조를 가진 어린이인 만큼 전방, 후방을 유심히 주시해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추어야 한다.

어린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이 있다. 먼저 길을 건널 때는 일단 멈춰 좌우를 살피고, 자동차가 모두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손을 든 후 건너야 하며 절대 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주변에 어린이가 있다면 꼭 안전 수칙을 알려주고 혹시 모를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모두 스쿨존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앞으로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

글 - 김채린 수습기자 kl3672@sungkyul.ac.kr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중부일보

[참조] 중부일보, 세계일보



이국땅에서 이름을 알린 독립운동가, 조명하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만에서 유명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있다. 1928년 일본의 왕족을 처단한 독립운동가 조명하. 이국땅에서 잘 알려졌지만, 우리에겐 낯선 이름을 가진 그를 이번 호에서 알아보자.

#22살, 독립운동을 결심하다



1905년 4월 8일 황해도에서 태어난 조명하는 명민하고 굳건한 성품으로 일찍이 일제에 탄압받는 민족의 슬픔에 눈을 떴다. 그는 1926년에 일어난 송학선의 의거에 큰 영향을

받아 인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기로 했고, 일과 가족을 모두 뒤로한 채 일본으로 갔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본의 우두머리를 없앨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생각에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향하게 된다. 중국 상하이로 직행하는 것은 일본 경찰들의 통제와 감시가 철저해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명하는 일본 영토에서 비교적 여행이 자유로운 대만을 거쳐 상하이로 향한다.

#24살, 일본 육군 대장을 처살하다

대만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요충지였기에 일본은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 대만을 최초의 식민지로 삼았다. 1927년 11월 대만에 도착한 조명하는 일본이 대중국 침략전쟁을 계획하면서 일본 왕의 장인인 구니노미야 구니히코 육군 대장을 육군특별검열사로 대만에 파견한다는 소식

을 듣게 됐다. 그는 대만 찾집에서 일하면서 구니노미야가 오기를 기다리며 틈틈이 단검술을 연습했다.

1928년 5월 14일 타이중 도서관 앞의 구니노미야 환영인파로 북적였다. 9시 55분 심수 대의 호위 차량과 함께 구니노미야가 탑승한 차량이 보였다. 조명하는 차량 행렬의 속도가 늦춰지길 기다리다가 차가 좌회전하며 속도를 늦추던 순간 달려 나가 독을 바른 단도를 던졌다. 목덜미에 부상 입은 구니노미야는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8개월 후 사망했다.



#한 사람의 독립운동

일본인에게 신과 다름없는 왕족을 표적으로 한 단독거사였기에 일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일본은 한국, 일본, 대

만에서 한 달간 조명하에 대한 언론보도를 금지했다. 심지어 조명하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를 지어내기도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조명하는 그해 사형선고를 받고 3개월도 안 된 채 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순국 직전 형리가 “할 말이 없는가.”라고 묻자 의연하게 다음처럼 말했다.

“나는 삼한(三韓)의 원수를 갚았노라.

아무 할 말은 없다.

죽음의 이 순간을 이미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다만 조국 광복을 못 본 채 죽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저 세상에 가서도 독립운동은 계속하리라.”

한국 탄압의 주체인 일본의 육군 대장을 처살한 조명하의 독립운동은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대부분 조직적이거나 배후가 있었으나 조명하의 의거는 단독거사였다. 이처럼 그의 의거는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는지에 대해 알려준 사건이었다.

글 - 자연서 수습기자 yeonsoo0127@sungkyul.ac.kr

사진 - 국가보훈처

[참조] 국가보훈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걸어서 지역속으로

힐링이 필요하다면 포천 여행은 어떠신가요?

한 학기 동안 시험과 과제로 지쳤던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너무 멀지도 않아 가볍게 당일치기로도 갈 수 있으며 풀 내음까지 가득 맡을 수 있는 서울 근교 여행지 포천에 대해 궁금하다면 여기 모두 주목~!

#Do you know Herb Island?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허브 아일랜드에서는 4월 22일(토)부터 7월 1일(토)까지 만개한 라벤더를 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허브 아일랜드는 ▲힐링 존 ▲산타 존 ▲베네치아 존 ▲향기 존 4가지 테마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즐길 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축제 기간 내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즌 푸드 ▲라벤더 아이스크림 ▲라벤더 라떼 ▲라벤더 에이드 ▲라벤더 빵빠레가 준비되어 있으니 라벤더를 좋아한다면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허브 아일랜드 측에서는 축제를 즐기기를 위한 여러 코스를 추천하고 있는데, 그중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 데이트 코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허브힐링센터에서 허브 굿즈들을 둘러보고 옆에 위치한 추억의 거리에서 인생 샷을 남긴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출출해졌을 땐 간단히 티 타임을 가질 수 있는 허브차와 베이커리를 파는 카페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배를 채웠다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연상시키는 베네치아 존에서 연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곤돌라를 탄 후 각종 체험이 가능한 체험장에서 만들기를 즐겨 보자. 마지막으로 산타 마을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 산타 마을에서는 허브 아일랜드 필수 코스인 라이트 쇼를 관람할 수 있다.

#아이유가 시공간을 이동했던 포천 아트밸리

이곳은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에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필자도 드라마에서 예쁘게 나온 것을 보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포천 아트밸리는 현재 모습과는 달리 1990년대까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 폐쇄적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림 같은 에메랄드빛 호수를 가져 자연 속에서 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연인원 40만 명이 찾아오는 포천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4년부터는 밤하늘에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천문과학관이 개관돼 아이들에게는 체험교육의 명소로, 연인들에게는 데이트 코스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포천 아트밸리 주 진입로에는 가파른 언덕이 있어 걷길 원하는 방문객들은 걸어도 되고 걷기 힘든 노약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모노레일을 이용해도 된다. 모노레일은 편도 3,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포천 아트밸리의 대표 관광지인 천주호는 화강암을 채석하며 파고들었던 웅덩이에 샘물과 우수가 유입되어 형성됐다. 호



수의 최대 수심은 25m로 가재, 도롱뇽, 피라미가 사는 1급수의 호수이며 수질 보호와 안전을 위해 호수 출입을 금지한다.

#여행의 묘미 시장 먹거리 탐방하기

마지막으로 포천에 위치한 윤천전통시장 내 맛집 두 곳을 추천한다. 첫 번째는 학교 앞 경양식집 느낌이 나는 수타 돈가스 전문점, ‘돈가스 해매’다. 종류도 다양하여 취향에 따라 등심·마늘 돈가스, 치즈 롤가스 등 골라 먹는 재미도 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맛집은 백반이나 아귀찜, 고추장찌개 등 국물 요리를 주로 파는 ‘원대로 식

당’이다. 원대로 식당의 사장님은 윤천시장에서 3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식당 이름을 원대로 식당으로 지었다.

글 - 이현림 수습기자 lks070812@sungkyul.ac.kr

사진 - 허브 아일랜드 공식 블로그, 맛있는 류미 블로그

[참조] 허브 아일랜드, 포천 아트밸리 홈페이지



우리의 여름을 꺼내 보며

따뜻한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왔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다. 덥고 찝찝해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이런 여름에도 낭만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여름을 사랑과 함께 아름답게 담아낸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노트북
개요 ▲영화
개봉 2004.11.26.
출연 배우 라이언 고슬링, 레이철 맥 아담스, 제나 로우랜즈, 제임스 가너 등

#첫눈에 반한다는 게

17살, 노아는 밝고 순수한 앨리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다. 둘은 서로에게 순식간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 사랑을 하며 로맨틱한 여름을 보낸다. 그러나 꿈같던 사랑의 시간은 금방 끝나버리고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다. 목공소에서 일하는 노아와 달리 앨리는 대학에 진학해야 했다. 서로의 다름과 부모님의 반대, 노아와 앨리는 그렇게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된다. 이후 앨리는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하고 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4살 여름, 둘은 다시 만나게 된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몇 년이 묵은 서로의 마음을 꺼내 쏟아낸다. 결국 앨리는 약혼자와 헤어지고 노아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다. 둘은 한 번의 이별, 한 번의 재회 이후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간다.

#인생의 끝까지 사랑을

앞선 이야기는 노아와 앨리의 젊은 시절 이야기다. 퇴행성 기억 장애를 앓게 된 앨리가 노아와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기록해 두었던 것. 노아가 든 노아는 매일 앨리에게 그녀가 기록해 둔 두 사람의 젊은 시절 사랑 이야기를 읽어준다. 노아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잠시나마 앨리는 그때의 사랑을 기억해 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몇 분 뒤면 다시 기억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노아는 잠시라도 그녀가 기억을 해냈기 때문에 괜찮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일까. 노아 또한 건강하진 못했다.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다시 앨리를 찾은 노아. 잠에서 깬 앨리는 기적처럼 노아를 알아본다. 마지막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둘은 함께 두 손을 부여

잡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다. 인생의 끝까지 앨리와 노아는 사랑을 한 것이다.



노아와 앨리, 둘의 사랑은 현실적이면서도 영화 같다. 첫눈에 반한 상대와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별하고, 거짓말처럼 아름다운 재회를 하게 된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함께 한 둘의 사랑은 영화가 끝난 후까지 여운을 남겨준다. 아름답고 아련한 노아와 앨리의 사랑 이야기. 한번 재생 버튼을 누르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영화를 멈출 수 없다. 울여름,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엿보는 건 어떨까.



제목 그 해 우리는
개요 ▲드라마
개봉 SBS 2021.12.06. ~ 2022.01.25.
총 16부작
출연 배우 최우식, 김다미, 김성철, 노정의 등

#전교 1등과 전교 꼴등

다큐멘터리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국연수도. 매일 잠만 자는 전교 꼴등 최웅도, 원한다면 청춘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 뿐. 열아홉, 그해 여름을 강제 기록 당한 남녀가 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영상으로 남아 전 국민 앞에서 사춘기를 보내야만 했던 두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상극이다. 환경도, 가치관도, 목표도 다른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은 단 하나. 그 해, 첫사랑에 속절없이 져서 들었던 것. 10년이 흐르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 순수함과 풋풋함은 멀리 던져두고 더 치열하고 악랄해진 두 사람이 다시 만나 또 한 번의 시절을 기록한다. 말하자면 그 해보다 좀 더 유치하고 좀 더 찌든한 휴먼, 청춘, 재회, 그리고 애증의 다큐멘터리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도 기록이 되면 이야기가 된다. 서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도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해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여름 청춘 한 조각

드라마 <그 해 우리는>을 보는 내내 머릿속에 '청춘'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열아홉에서 스물아홉.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의 앞에서는 마치 고등학생 때처럼 유치해지는 연수와 웅이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열아홉 다큐멘터리 촬영에서는 장면 하나하나가 풋풋한 고등학생의 설렘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 번쯤 있었을 법한 에피소드들이 학창 시절의 기억을 꺼내 보게 만든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이어지는 연수와 웅이의 연애 이야기는 딱 그 나이대의 어리숙한 사랑을 보여준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 이해가 되면서도 아쉽다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여름을 배경으로 한 청춘이 가득 담긴 드라마 <그 해 우리는>은 여름만 되면 자꾸만 꺼내 보고 싶어진다.

푸를 청에 봄 춘, 청춘. 새싹이 과랴게 돌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를 말한다. 필자는 청춘 하면 봄보다는 여름이 먼저 떠오른다. 이번에도 여름의 청춘에 어김없이 이끌렸다. 청춘의 시작부터 끝자락까지 온전하게 담아낸 작품에 빠져들지 않기란 쉽지 않다.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학우들이 아름다운 시간을 채워나가기를 응원한다.

글 - 권경아 수습기자 kka468@sungkyul.ac.kr
사진 - SBS 홈페이지, 네이버 영화
[참조] - SBS 홈페이지



비바리움, 나만의 작은 세상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로 인해 현대인들은 공기가 좋거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 자연을 찾으려 다닌다. 하지만 이런 자연을 집 안에서 가꿔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나만의 작은 세상, 비바리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비바리움에 대해



비바리움(Vivarium)은 관찰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을 가둬 사육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작은 화분부터 집채만 한 크기, 개미에서 거대한 파충류나 아마존의 열대 우림까지 비바리움의 규모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대부분, 특정한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 조건을 소규모로 만들어 작은 생태계처럼 보이게 한다.

비바리움의 종류

비바리움은 크기와 키우는 종류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달라진다. 크기에 따라 가장 작은 '보틀 가든(Bottle Garden)'부터 운동장만 한 '바이오스피어(Biosphere)'까지 있다. 키우는 종류에 따라서는 ▲아쿠아리움 ▲팔루다리움 ▲리파리움 등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쿠아리움 역시 비바리움의 일종이다. 아쿠아리움(Aquarium)은 해수어나 민물고기를 키우기 위한 수조를 뜻하며 수초는 때에 따라 넣거나 빼다. 팔루다리움(Paludarium)은 육지와 물이 모두 있는 형태의 사육장으로 습지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제작하지만, 물의 양에 따라 소형 물고기, 생이 새우, 민물 게 등을 키울 수도 있다. 육지와 물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제작부터 관리까지 난도가 가장 높다. 리파리움(Riparium)은 연못, 호수, 강가 등 수변 생태계의 재현에 중점을 둔 비바리움이다. 팔루다리움과는 달리 육지를 따로 만들지 않고 식물의 뿌리는 물속에, 줄기는 물 위



에 나오도록 한 것이다. 보통은 토분이나 거치대를 이용해 수면에 맞춰 식물을 심는다. 이외에도 테라리움(Terrarium), 키노코리움(Kinocorium), 포미카리움(Formicarium) 등이 있다.

비바리움을 제작, 관리하는 방법

비바리움에는 조명, 땅, 어항을 꾸밀 암석 등 준비물이 필요하다. 먼저 사육 중인 동물 및 식재 중인 식물 종의 요구 사항에 맞는 조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파충류는 변온동물이기에 태양열에 의해 몸을 덥혀야 하므로 비바리움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히트 램프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특정 식물이나 주행성 동물은 비타민 D와 칼슘을 합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UV 공급원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은 UVB로 일반등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UVB 전용 램프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램프의 on/off 주기 변화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주야간 조절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설정된 낮과 밤의 지속 시간은 사육 종의 자연 서식지 조건과 원하

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자연 서식지와 다른 조건에 적응할 수 없는 종의 경우, 온도가 매우 중요한 매개 변수가 된다. 사육장의 바닥 또는 측면에 열을 제공하는 히트 램프 또는 적외선 램프, 가열판, 열매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가열은 일반적으로 온도 조절기에 의해 제어된다. 사육 종의 자연 서식지 조건과 일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온도 감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온도 제어 시스템은 종종 습도뿐만 아니라 조명주기 및 광량도 조절해야 한다.

많은 식물과 동물은 수분 변화에 대한 내성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습도를 사육자가 직접 맞춰줘야 한다. 안개 생성기 또는 자동분무기를 배치해 주거나 분무를 직접 해줘야

할 때도 있다. 환기는 공기 순환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곰팡이의 성장과 해로운 박테리아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는데에도 중요하다. 이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서식하던 개체일수록 특히 중요하다. 전통적인 방법은 흡입 팬 또는 환기 슬릿을 낮은 레벨에 배치하고, 다른 배출 팬을 높은 레벨에 배치해 신선한 공기를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것이다.

땅은 벽에 바르는 점성을 띤 흙을 이용한다. 주로 건조시킨 이끼인 수태 등과 배합한 것이 많이 쓰이며 기성품 아트 소일(Art Soil) 종류도 쓰인다. 사육 개체의 은신이나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유목이나 암석을 넣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무위성 타란툴라의 경우 반드시 유목을 넣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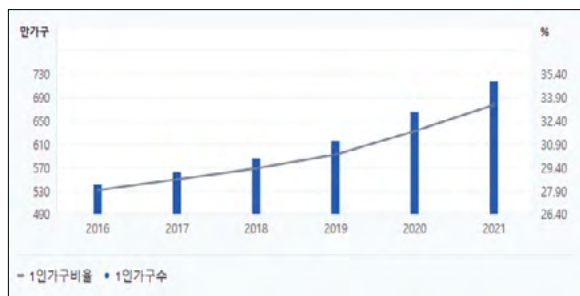
왜 비바리움에 주목할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바리움'은 누구에게나 생소한 단어였다. 그야말로 특정 마니아층만이 즐기는 소수의 취미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SNS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비바리움이 공유되며 소위 '대세'로 떠오를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정보

를 얻기에도 한층 수월해지고, 동호회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프라도 나름 탄탄하게 구축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진 탓이다. 얼마 전에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어항 속 '열대 우림'을 꾸미는 한 연예인의 비바리움 활동이 전파를 타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비바리움을 취미로 갖는 이유



비바리움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같은 종이라도 살아가는 생태나 습성이 천차만별이고 사람처럼 개체에 따라서 성격도 제각각이라,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주

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만든 작은 세상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곤충들을 볼 때면 뿌듯하면서도 묘한 희열이 느껴진다고요?" 이들은 '나만의 작은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점을 비바리움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또한 TV 속 다큐멘터리나 박물관, 전시관 등에서나 볼 법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실제와 같게 조성하기 때문에 자연을 오롯이 이해하는 심오한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비바리움은 1인 가구에 가장 적합한 취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33.4%, 가구 수로 따지면 무려 716만 5,788가구가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을 달래는 이들도 급속도

로 늘고 있지만, 출근 후 혼자 있을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비바리움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어울리는 취미라고 볼 수 있다.

집안에서도 녹색 자연을 감상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무관심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식물 또는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비바리움. 이 작은 자연을 빗 삼아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야말로 비바리움의 궁극적인 가치가 아닐까 싶다.

글 - 유진규 수습기자 thanfaktmxj@sungkyul.ac.kr

사진 - MBC '나 혼자 산다', 열루어 코리아

[참조] 여행스케치, 국제뉴스

청년 정신 건강 적신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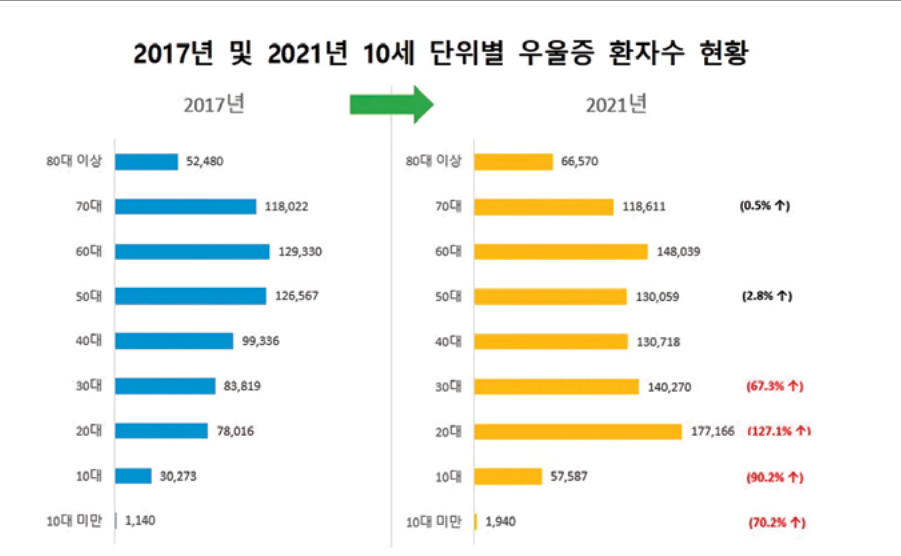
청년 정신질환 환자 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양한 상담 정책이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청년 정신 건강과 상담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각박한 세상 속 위태로운 청년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5년 전에 비해 20대의 우울증은 127.1%, 불안장애는 8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21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0~30대는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전년 대비 10.1% 증가했으며, 20대도 8.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위태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4월,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은 25세의 나이에 삶을 내려놓았다. 불과 며칠

전 서울 강남구에서는 10대 여학생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자살을 생중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다음 날 인근에서는 중학생이 동급생을 찌르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네이버 개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했으며 인천 미추홀구에선 전세 사기로 세 명의 청년이 삶을 포기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청년들의 자살을 가볍게 여기거나 일회성 이슈로 대 처선 안 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5대 사망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 2021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

	0세	1-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위	총사망률의 41.9% (117.9%)	악성신생물 (1.7%)	고의적 자해(자살) (7.1%)	고의적 자해(자살) (23.5%)	고의적 자해(자살) (27.3%)	악성신생물 (38.1%)	악성신생물 (105.2%)	악성신생물 (267.3%)	악성신생물 (649.7%)	악성신생물 (1,342.4%)
2위	선천 기형, 병형 및 열매체 이상 (37.0%)	가해(타살) (0.7%)	악성신생물 (2.3%)	운수사고 (4.1%)	악성신생물 (11.4%)	고의적 자해(자살) (28.2%)	고의적 자해(자살) (30.1%)	심장 질환 (51.0%)	심장 질환 (171.4%)	심장 질환 (917.1%)
3위	영아돌연사 증후군 (19.3%)	운수사고 (0.6%)	운수사고 (1.9%)	악성신생물 (3.5%)	심장 질환 (3.7%)	간 질환 (11.6%)	심장 질환 (23.5%)	뇌혈관 질환 (40.1%)	뇌혈관 질환 (141.1%)	폐렴 (791.7%)
4위	가해(타살) (5.4%)	선천 기형, 병형 및 열매체 이상 (0.5%)	심장 질환 (0.5%)	심장 질환 (1.3%)	운수사고 (3.5%)	심장 질환 (10.0%)	간 질환 (22.9%)	고의적 자해(자살) (28.4%)	폐렴 (123.2%)	뇌혈관 질환 (607.7%)
5위	심장 질환 (2.7%)	주라사고 (0.5%)	뇌혈관 질환 (0.4%)	뇌혈관 질환 (0.5%)	간 질환 (3.0%)	뇌혈관 질환 (8.1%)	뇌혈관 질환 (17.0%)	간 질환 (26.5%)	당뇨병 (60.4%)	알츠하이머병 (339.2%)

• 연령별 사망원인 구성비 = (해당 연령의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 해당 연령의 총 사망자 수) × 100

청년들의 정신 건강 악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정신질환의 원인을 하나로 규명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사회적, 생물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청년들은 극심한 경쟁과 취업난에 시달리며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위의 불균형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외에도 생물학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의 장애나 유전적인 요소가 정신질환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사회적인 책임

청년들의 정신 건강 악화는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청년들이 느끼는 우울감은 개인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만들어낸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한국 사회의 개인주의는 공동체 의식을 저하해 청년들이 타인에게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을 조장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며,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요와 압박이 아닌 희망과 소통이다. 청년들의 실패에 위로를 건네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청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는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과 치료 방법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상담 지원, 청년들의 정신 건강 지키기

- 사이버 상담센터 1388

1388이란,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상담 채널이며, 온라인상담 서비스(카카오톡·페이스북·문자상담 및 전화상담)를 제공한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만 9~24세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상담을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웹 심리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경험 ▲우울 정도 ▲사회 불안 검사도 가능하다.

- 경기 청년 마음 상담소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답지와 상담글을 쓰면 청년 마음 건강 NGO '청춘 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이 게시판을 보고 답장해 준다. ▲취업 ▲진로 ▲퇴사 ▲연애 ▲가족관계 등 총 11개 상담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토대 상담을 진행한다.

- 본교 학생 상담 센터

본교 학생 상담 센터에선 성결멘탈건강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선 ▲정신 건강 워크숍 ▲뇌파 검사 ▲찾아가는 고민 상담소를 진행한다. 정신 건강 워크숍은 ▲우울 ▲불안 ▲수면장애 ▲무기력 등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뇌파 검사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충동 조절 ▲우울·불안 정도 ▲자·우뇌 활성화 ▲스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1388

1388 전화상담 이용방법

- 1. 상담 신청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상담, 전화상담)
- 2. 상담 접수 (1388 상담센터)
- 3. 상담 진행 (1388 상담센터)
- 4. 상담 종료 (1388 상담센터)

1388 온라인상담 이용방법

- 1. 상담 신청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상담, 전화상담)
- 2. 상담 접수 (1388 상담센터)
- 3. 상담 진행 (1388 상담센터)
- 4. 상담 종료 (1388 상담센터)

친구처럼 편안한 온라인 고민 상담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with 전문상담소를 찾아온 언니들 <100여 명 이상 상담 NGO>

- 1. 경기청년 마음상담소
- 2. 상담 신청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상담, 전화상담)
- 3. 상담 접수 (1388 상담센터)
- 4. 상담 진행 (1388 상담센터)
- 5. 상담 종료 (1388 상담센터)

경기청년 마음상담소에서 걱정과 고민을 물어드립니다. 찾 간을 비우듯 고민과 걱정을 비워주세요.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

경기청년포털 검색

트레스 지수 등을 파악해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찾아가는 고민 상담소는 상담 및 정신의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내(중생관 앞, 학술정보관 1층 등)에서 간단한 심리 검사와 해석 상담을 진행해 상담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지와 도전

청년 시절은 사회에서의 첫걸음이자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시기다. 청년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각자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에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에 정신 건강에 위협을 느낀다면,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자신이 겪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이 생긴다.

글 - 김다는 기자 kijg99@sungkyul.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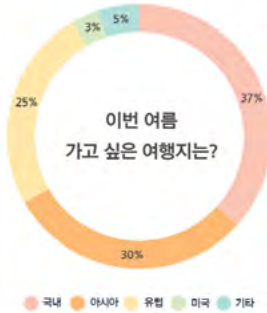
사진 -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조] 성결대학교 학생 상담 센터, 경기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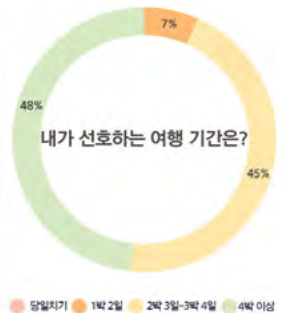
성결인의 여행!

이번 호에서는 다가오는 종강을 맞이해 성결인의 여행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60명의 성결인들이 선택한 여행 방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결과를 확인해 보자!

이번 여름 가고 싶은 여행지는?	응답 인원	응답 비율
편한 곳이 최고, 국내	22	37%
가까운 해외 여행지, 아시아	18	30%
꿈의 여행지, 유럽	15	25%
배운 영어 쓰기, 미국	2	3%
기타 (호주, 멕시코 등)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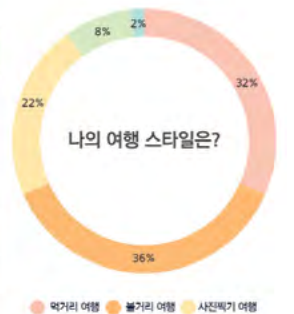
내가 선호하는 여행 기간은?	응답 인원	응답 비율
핵심만 빠르게, 당일치기	0	0%
여행은 당일치, 1박 2일	4	7%
그래도 여행은 길게, 2박 3일 ~ 3박 4일	27	45%
가는 길에 꼭 쉬고 온다, 4박 이상	29	48%



여행 계획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응답 인원	응답 비율
중요한 건 돈, 여행 경비	21	35%
이동시간은 짧게, 좋으니까, 여행 거리	3	5%
금강산도 식후경, 여행 맛집	18	30%
눈에 담는 아름다운 여행 명소	12	20%
기타 (숙소, 교통, 함께 하는 사람 등)	6	10%



나의 여행 스타일은?	응답 인원	응답 비율
모든 건 내 배에, 먹거리 여행	19	32%
모든 건 내 눈에, 볼거리 여행	22	36%
모든 건 내 손에, 사진찍기 여행	13	22%
모든 건 내 방에, 숙소에만 있기	5	8%
기타 (모두 중요)	1	2%



#나만의 국내 여행 코스

♣ 강릉 여행 코스

도착해서 짬뽕 순두부 먹기 - 강릉해변에서 바다 보고 사진 찍기 - 초당옥수수 커피(갤러리 뽕스) 마시기 - 경포 호수에서 자전거 타기 - 저녁으로 고성 생선찜 먹기

- 박지우(경영 21)

♣ 혼자서도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두박이 전라남도 담양 코스

센트럴시티 - 담양 터미널 - 죽곡원(입장료 3000원) - 대사랑운수대동밥(한돈+한우 떡갈비 추천!) - 국수거리(대밭아이스크림 구매 강추) - 관방제림 - 메타세콰이어길 산책(포토존) - 메타프로방스 구경 - hello soap 카페 - 베비에르 베이커리 - 담양 터미널

- 김지현(사북 20)

♣ 대전 여행 코스

대전역 뒤쪽 카페거리 분종카가기 - 대전역 앞에서 사진 찍기 - 역 근처 행복 갈국수 먹기 - 대전 지하철 1호선 타고 성심당 부티크 가기(꼭 순두부유채랑 티라미수를 먹기) - 걸어서 바로 옆 성심당 본점 가서 빵 털기(튀김소보로는 꼭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먹기)

- 이서현(도디 22)

♣ 부산 광안리 여행 코스

노을길 떠나 밤에 오트두어하기(조명이 너무 이쁨) - 언더더코너 LP바 꼭 가기 (유형재 닮은 꼴 사장님이 대기 중, 원하는 노래 틀어주심, 감성샷 찍기 가능)

- 강찬미(사북 20)

글 - 박제현 부편집장 zcjtfdz@sungkyul.ac.kr, 이서연 기자 tjdsu1596@sungkyul.ac.kr

자랑스러운 성결인



진수빈

현 문학 저널 소속 작가

Q 글을 쓸 때 보통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되는지?

글에 대한 영감은 특별한 일들로부터만 얻지는 않는다. 정말 사소한 순간이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글의 영감이 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사소한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글에 대한 영감을 얻는 나만의 방법이다.

Q 강사이자 작가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작가는 오랜 꿈이었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글쓰기는 일상이었다. 그러던 도중 우연히 공모전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고, 운 좋게 신인 작가상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꿈을 펼쳐 나가는 중이다. 반면 강사는 정말 우연한 계기로 시작하게 됐다. 20살 겨

울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최대한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 국어 학원 조교로 들어갔다. 그러던 중 독서 논술 선생님 한 분이 나가게 되면서 급하게 수업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고, 당시 국문과 졸업 후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수업을 하게 됐다. 처음엔 소수 정예의 수업을 했었는데, 진심을 다하며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게 됐다. 지금은 중·고등부 내신과 수능 수업을 병행하는 중이다.

Q 성결대학교에 와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

국어국문학과 교수님들을 만난 것이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4학년 때 이형우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과제를 보시더니 글을 진지하게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다. 그래서 글쓰기에 뜻이 있는 학우 몇 명과 함께 매주 일요일 저녁 9시마다 글쓰기 수업을 들었다. 쉬는 날, 그것도 늦은 시간에 줌으로 수업을 진행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교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일 년 넘게 그 수업을 해주셨다. 이 경험이 어찌면 내가 신인 작가상을 탈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Q 대학 시절 가장 생각나는 활동이나 일은?

홍보대사 블루인 활동이다. 1학년 신입기수부터 3학년 블루인 회장까지 하면서 선후배와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블루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했던 교내 활동들도 재미있었다. 또, 홍보대사로서 코엑스 정시 박람회에 참여했던 일도 특별한 추억이다. 블루인 활동은 애교심을 갖고 졸업을 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이다.

Q 국어국문학과 지원을 생각하는 입시생들과 재학생들에게 한 마디

요즘 국어국문학과는 취업이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선택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그런 걱정보다는 본인이 원한다면 국어국문학과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 모든 일의 기본은 인문학에서부터 출발하듯, 열심히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충분히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말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훗날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학과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다.

Q 앞으로의 계획

올 여름에 수필 신작이 나온다. 작년 신인 문학상을 탄 뒤로 처음 신는 글이라 많이 떨린다. 이게 가장 가까운 계획이고, 먼 미래 계획은 사실 많이 아득하긴 하다. 하지만 글 쓰는 일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더 많이 보고 듣고 배우며 성장해야 할 것 같다.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한 내 글의 모토인, 작고 낮은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위해 다양한 곳에 눈을 돌릴 것이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기자칼럼



김근형 수습기자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며 2030 세대의 주머니도 함께 얹아졌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들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이다. 짬테크 즉 짬돌이+재테크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뜨고 있는 짬테크가 하나 있다. 바로 '거지방'이다. 다들 거지방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구독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통해 들어봤다.

거지방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지출 내역이나 절약 습관을 공유하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이다. 자신의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 한 달 지출 목표를 정해 놓고 하루에 얼마씩 돈을 썼는지 낱알이 공유한다. 돈을 아끼면 격려해주고, 택시를 타거나 비싼 커피를 사 마시는 행위에는 질책하기도 한다.

이런 거지방이 새로운 문화로 생겨나게 된 건 여러 이

유가 있다. 첫 번째로 줄어드는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2030 세대는 임시직·일용직 등 점점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이 작년보다 4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두 번째로 청년 대출의 증가이다. 2030 세대는 주식·가상화폐·부동산 등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그런데 최근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청년들의 손해도 컸다. 다른 세대에 비해 대출도 가장 많이 늘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커졌다. 세 번째로 가파른 물가 상승률이다. 지난 3월에도 소비자 물가는 4.2%, 외식 물가는 7.4%나 올랐다.

거지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절약 생활과 동기 부여도 되고, 놀이처럼 돈을 아낄 수 있어 좋을 뿐더러 주로 익명이다 보니 팍팍한 현실이나 주머니 사정에 대해서도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만큼 2030 세대가 힘들다는 뜻이라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머니 사정이 비슷한 사람

끼리 모여 동질감이나 안도감을 느끼는 데 그치거나 그나마 물건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저소득층을 알잡는) '거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 부정적 절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필자는 앞서 유행했던 트렌드인 플렉스·올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지방을 보며 소비 행위를 공개하고 절약을 독려하는 문화가 새롭게 떠오르게 된 것이 신기하면서도 사소한 소비마저 줄여야 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호캉스, 명품소비, 해외여행을 즐기는 2030 세대를 보며 청년 사이에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의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러므로 새로운 트렌드의 등장과 함께, 이제 우리는 다른 측면을 면밀히 살피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다.

글 - 김근형 수습기자 hanangun@sungkyul.ac.kr

체험에세이



이현림 수습기자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매우 사소한 선택부터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가 걸린 선택까지 어떠한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옳지 않은 선택인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만의 판단 방법으로 가장 나은 선택을 한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따른 후회가 남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필자 역시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는 편이지만 나중에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후회를 한 경험이 여럿 있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후회가 남는 순간은 바로 여행에서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은 하나부터 열까지 선택의 순간이다. 특별한 날이기에 만약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평소보다

선택에 따르는 후회들...

“
우리는 선택에 따르는 후회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으며,
만약 그 선택이 가져온 후회가 있다면
그것 또한 발판 삼아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면 된다.

”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돼 더욱더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후회되는 선택을 했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다. 특히 여행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우리가 여행을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평소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기 때문이다. 평소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여행지에서 처음 겪는데 그 누가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여행의 묘

미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판단력을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행인데 뭐 어때~”라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며 여행이 아니라면 언제 또 내가 끌리는 대로만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우리는 선택에 따르는 후회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으며, 만약 그 선택이 가져온 후회가 있다면 그것 또한 발판 삼아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면 된다. Maybe 다른 선택을 했을지라도 또 다른 후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도전과 선택을 멈추는 것이 아닌 다음 선택에서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성장해가는 나를 마주하게 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있을 것이다.

글 - 이현림 수습기자 lks070812@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ISTP

지금까지도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MBTI, 다들 각자의 MBTI를 아는가? MBTI가 사람들 사이에서 스토크의 주제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과몰입이 시작됐다. MBTI 검사만큼 관심을 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황을 가정하고 뒤 대답하며 서로의 대답에서 생기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중 필자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열을 올리는 토론 주제는 바로 T/F의 차이이다. 필자의 MBTI는 ISTP로 T유형이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T와 F의 차이가 느껴져 흥미로울 때가 많다. 또,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한 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될 때도 있다.

이렇듯 MBTI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타인의 성격을 이해할 때 과거보다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그 사람이 그 유형에 꼭 맞진 않더라도 ‘저 유형은 저런 성격이구나’ 하며 쉽게 이해하게 된다. 사소하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다투곤 했던 문제도 MBTI 유형으로 설명하면 한 번에 납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MBTI 과몰입이 시작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자신의 MBTI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고작 16가지의 유형으로 수많은 사람을 나눠 단정 지을 순 없다. 그렇기에 과몰입도 좋지만, MBTI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만약 ‘나 아파.’라는 친구의 말에 뭐라고 답할 것인가? ‘어디가 아파?’라고 되물을 것인가. 아니면 ‘괜찮아?’라고 할 것인가. 보통 전자의 대답은 T유형의 사람이 하

고, 후자의 대답은 F유형의 사람이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두 개의 대답 중 정답과 오답은 없다. 둘 다 상대를 걱정해서 한 말이기 때문이다. T유형의 사람이라고 해서, 반대로 F유형의 사람이라고 해서 공감을 무조건적으로 못하거나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상대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하는 대답이다. 비록 상대의 대답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진 말자. 그 대답 역시 누군가에겐 진심에서 나온 최선의 걱정이었을 테니.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ld0827@sungkyul.ac.kr

주간사설

“아메리칸 파이” – 잃어버린 꿈에 대하여



김희선 교수

영어영문학과

지난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 후 국민방문 만찬 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가 연일 화제에 올랐었다. 이 노래는 돈 맥클레인(Don McLean)이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곡으로서, 1971년 10월 앨범 발매 이후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빌보드 1위 곡 중 가장 긴 노래로 러닝 타임이 9분 가까이 되고 가사도 6절이나 되는 대곡인 데다, 첫마디부터 자유로운 리듬에 정확한 음정을 맞추기 쉽지 않은 멜로디 때문에 접근하기 만만치 않은 노래이다. 후렴구를 제외한 1절만 불렀지만, 백악관 무대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퍼포먼스가 즉석인지 연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기립 박수를 치며 감동을 느낀 이유에 대해 어느 미국 하원의원은 말하기를, “그 노래는 미국의 제2의 국가나 다름없는 노래이다. 미국인이려면 듣는 순간 몽클한 향수를 느끼는 노래를 외국 정상이 불러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하였다. 만약 외국 정상이 우

리나라에 와서 “아리랑”을 불렀다면, 우리 국민 모두 큰 놀라움과 감동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노래를 만든 돈 맥클레인은 “빈센트”(Vincent)라는 노래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싱어송라이터로서, 가수로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Bob Dylan)과 함께 1960~70년대 미국을 풍미했던 음유시인이다. 이 노래는 2015년 그레미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20세기 베스트 5곡’에 선정된 명곡이다. 18쪽에 이르는 이 노래 가사의 원본이 뉴욕 경매장에서 120만 불(약 14억원)에 낙찰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장장 노래만 9분 가까이 되는 이 노래는 대중가요 창작의 규칙을 파괴한 곡으로도 유명하다. 전통적인 서정적 서사의 라인을 깨고 길고 혼란스러우며 다양한 장면의 나열은 T. S. 엘리엇의 시와 밥 딜런의 노랫말을 떠올리게 한다.

“아메리칸 파이”는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필자에게도 매우 익숙한 노래이다. “바이~ 바이~ 미스 아메리칸 파이”로 시작하는 후렴구의 경쾌하고 밝은 멜로디는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직도 기억해/ 음악이 나를 얼마나 웃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사람들을 춤추게 하고 싶어/ 그러면 아마도 사람들은 당분간이지만 행복해지겠지/ ... 그러나 무엇인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느낌이 왔지/ 음악이 죽던 그 날.”

이 노래는 시인 T. S. 엘리엇의 “황무지”(The Waste Land)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한다. 가사 속에 “음악이 죽던 그 날”(The day the music died)이라는 후렴구가 반복하는데, 이는 1959년 2월 3일 경 비행기 추락으로 록가수 버디 홀리(Buddy Holly), 리치 밸런스(Ritchie Valens), 빅 바퍼(“The Big Bopper” Richardson)가 죽던 날을 의미한다. 노래는 그들의 죽음을 계기로 1960년대 미국 사회를 불안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암울했던 시대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가사에는 음악이 죽던 날, 즉 춤과 노래와 희망이 죽던 날 이후 미국은 격동적인 사회 변화와 정치적 사건들, 60년대 비트 세대와 70년대 히피 문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불안과 혼란 등의 다양한 장면들이 담겨있다.

맥클레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 노래는 일종의 정신적 노래입니다. 당시 미국의 정신과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한 노래예요. 그리고 음악이란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죠.”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인터뷰에서는 이 노래 가사에 대해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국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난 1970년대를 살았고 지금은 2015년에 살고 있다. 어디에도 더는 시적인 글은 없고 진정한 로맨스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였다. 그에게 60년대라는 미국의 불안의 시대는 모든 것이 죽은 날과 같았다. 그가 좋아했던 로큰롤 가수들

도, 미국의 정신도, 미국의 꿈과 종교, 미국의 평화 모두 사라진 황무지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

아메리칸 파이는 미국인들의 가장 대중적인 음식인 애플파이를 의미한다고 한다. 맥클레인은 6~70년대 미국의 여러 사회적 이슈와 에피소드 등을 마치 파이처럼 여러 조각들로 모아서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미스 아메리칸 파이’는 다양한 색깔의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자체를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은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잃어버린 꿈에 대하여 그 원인을 찾고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노랫말에는 이런 질문이 있다. “당신은 로큰롤을 믿습니까? 음악이 인간의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요?” 노래가 과연 인간의 영혼과 삶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이 물음은, 낭만이 사라지고 정신이 황폐화된 이 시대에 노래(시)가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존 F. 케네디가 남긴 말, “만일 더 많은 정치인들이 시를 알았다더라면, 그리고 더 많은 시인들이 정치를 알았다더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고 한 의미와 다르지 않다. 굳이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시를 더 읽고 노래한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노래와 시가 필요한 이유이다.

교수칼럼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은 새롭게 진화한다.



김경배 교수

관광개발학과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나면 언제나 하늘을 날고 있는 자동차와 지하세계를 그렸다. 그리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하세계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는 혁신(innovation)과 발명(invention)의 차이점이다. 발명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것이고, 그 아이디어가 소비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혁신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명되고 상용화되기까지의 시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벨이 유선 전화를 발명한 후 상용화 되기까지 73년이 걸렸고, 인터넷은 20년, 휴대전화는 14년이 걸렸다.

같은 맥락으로, UN은 2017년을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로 정하였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미래 세대의 기회를 보장하고 현대대의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대량관광의 폐해 속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이야기하였지만, 모두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시점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관광은 환경에 빚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이다. 발명을 통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 그리고 지금 해야 하지만 차일피일 미뤘던 지속가능한 관광,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속가능한 관광을 선택해야 하는 혁신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자연이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관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듯하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은 종식을 선언해야 하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지루함 때문이며,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랜드 러셀(Bertrand A. Russell)은 동물은

건강하고 먹을거리가 넉넉하면 행복하지만 현대 인간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다. 코로나 19 이후 생활 패턴으로 70% 이상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지루함으로 인해 인간은 여행을 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 19로 인해 그 여행의 형태가 바뀔 뿐이다. 코로나 블루로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권태로움과 우울함은 주위 회복 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위 회복 이론은 도시환경보다 자연이 주는 소프트한 자극을 통해 뇌의 회복을 돕게 되며, 자연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회복에 도움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 발생 전까지는 오버 투어리즘처럼 여행지 유명도와 실제 관광시설에서의 휴식이 강조되었으나 이후에는 자연공간에서의 체류 활동에 더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 흥미 관광(Special Interest Tourism)을 중심으로 소규모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통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가 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지만 특히 항공/여행/숙박업체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관광 전문 인력의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이 필요한 때이고 이를 위해 산관학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산관학 협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협력보다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각각의 구슬이 서로 연결되어야 그 진가가 발휘될 것이다. 현재 관광과 관련된 학과와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 관련된 협회, 학회 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는 반드시 끝나지만, 위기는 다시 온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관광산업을 한 개의 산업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생태계로 봐야 한다. 관광산업 생태계는 특정 산업의 생산 관계에서 형성되는 가치사슬과 이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금번 코로나 19로 인하여 관광산업생태계에서 드러난 약한 고리는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위기가 왔을 때 똑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코로나와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생각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성결대학교

지속가능(탄소중립) 캠퍼스 선언



우리 대학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의 시대를 맞아 지구환경 보존과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탄소중립) 캠퍼스를 조성하며 이를 유지한다.

지속가능(탄소중립) 캠퍼스를 지향하며 우리가 힘써 행할 바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탄소중립) 캠퍼스 선언문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 대학은 친환경 지속가능한 대학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하나, 우리 대학은 친환경 제품 구매에 적극 힘쓰며,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 대학은 친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 실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하나,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친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친환경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하나,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탄소중립) 캠퍼스를 구축하고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발생의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2023. 05. 31.

VISION

"Energy Zero Green Campus"
Green-Pia SUNGKYUL

최종목표

Green-Pia SUNGKYUL Campus

중장기
목표

에너지 제로 그린캠퍼스 고도화

단기목표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 활성화

차별화
전략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 조성

그린인재 양성

탄소중립
문화 확산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